

“무거운 쓰레기에 허리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폭염 속 환경미화원 쫓아보니

배출 기준 초과 종량제 봉투 다수...터지고 찢기기 일쑤 근골격계 질환 호소...“기피 시선·험한 말 등에 상처도”

“종량제 봉투 대부분 배출 적정량을 훌쩍 넘겨 하루에도 몇 개씩 터집니다. 덕분에(?)에 허리가 남아나질 않죠.”

8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학운동 인근 주택가. 체감온도가 이미 29도를 넘긴 날씨 속에서 형광색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들이 거리 한 켠에 쌓여있는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고 있었다.

수거한 종량제 봉투는 이들이 타고 이동하는 쓰레기 운반 차량 뒷편의 수납 공간에 실렸다.

종량제 봉투를 모두 실은 뒤 환경미화원들은 차량 뒷자석에 타 잠시 숨을 고르다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차에서 내려 분주히 손을 움직였다.

주택가 인근에 버려진 종량제 봉투들은 주로 20ℓ 규격이어서 상대적으로 무게가 덜 나가 수거에 많은 힘이 들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영양병원 등 상가 밀집지역에 버려진 것들은 대부분 7

5ℓ 여서 한 명이 들기 벅차 보였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적정량을 표시하는 ‘선’이 있는데, 75ℓ 봉투의 경우 이 선을 넘기면 열에 아홉은 상한 규정 무게인 19kg을 훌쩍 초과한다고 입을 모아 토로했다.

이보다 심각한 건 종량제 봉투 위에 일반 봉투를 올려 테이프로 칭칭 감아 같이 배출하는 경우인데, 연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년차 환경미화원 서명규씨는 “용량을 초과한 종량제 봉투로 인해 허리가 남아나질 않는다”며 “미화원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씨는 “뒤통진 종량제 봉투를 실을 땀 터지거나 찢어지는 경우도 잦은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몸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며 “깨진 유리조각



8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학운동 인근 주택가. 이미 체감온도 29도를 넘긴 날씨 속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거리 한 켠에 쌓여있는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고 있다. /정은정 기자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종량제 봉투에 버릴 때 잘 감싸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제88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적정 용량을 초과해 버리

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배출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수거하지 않을 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빚발쳐 기준치를 초과한 것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가져간다는 게 환경 미화

원들의 설명이다.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리인의 최남식 이사는 “기준치를 넘긴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계속되는 민원에 결국 다시 가

져야 해 일을 두 번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쓰레기의 무게도 환경미화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지만, 그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건 악성 민원과 자신들을 괴롭히는 시선이다.

이날 한 시간가량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다니는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잠시 수거차량이 정차하는 동안 뒷차량에선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환경미화원은 “좁은 골목이나 차량이 많은 곳을 지날 땐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는데, 어느 날엔 지나가던 운전자가 “평생 쓰레기나 치우고 살라”고 말해 큰 상처로 남았다”고 말끝을 흐렸다.

또 하루 종일 쓰레기를 만지다 보니 옷과 몸에 냄새가 배겨, 식당 이용조차 편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이사는 “근무 환경은 과거보다 나아졌으나 여전히 버려지는 무분별한 쓰레기들과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많다”며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정은정 기자

‘무일푼 50대’ 주택 69채 사들여 전세사기 ‘실형’

광주지검 “매수 주택 채무 승계 미고지 기망행위 입증”

검찰이 주택 구매 후 승계한 채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던 50대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입증,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8일 광주지검 공판부(윤나라 부장검사)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최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A(53)씨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만 승계하면 자분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무자본 갺투자’ 방식으로 주택 69채를 매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이 직접 맺지 않은 임대 계약이어서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4명에 대해 총 4억5천만원을 주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매도인과 직접 매매 계약만 체결했을 뿐, 주택 구매 후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고 보증금도 직접 받지 않았다”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주택을 사들였고, 승계한 채무를 기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이의 제기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지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A씨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재를) 알았다면, 승계에 이의를 제기해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권리를 행사했을 것이 명백하다”며 “A씨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은 숨긴 채 부동산 거래를 해

피해를 양산한 전세 사기범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안재영 기자

‘갈부림 예고’ 20대 징역형 집행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서현역 등 잇단 ‘흥기 난동’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았을 당시 SNS에 동종범죄 예고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8일 특수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동일 혐의로 기소된 B(18)군에 대해서는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7일 오후 11시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흥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재영 기자

광주서 심야시간 교통사망사고 잇따라

50대·40대 女 각각 아파트 단지·도로서 사망 치어

심야시간대에 치어 몰다 사람을 치어 죽게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30분께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B(60대·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전신에 찰과상 등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도, 무면허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주차장을 나오던 중 길에 앉아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전날 오후 11시35분께 광산구 승용교 도로에선 C(40대·여)씨의 차량에 D(60)씨가 치어 숨졌다.

D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나주에서 키보드를 타고 광주로 오다 승용교에서 넘어졌는데, 이를 보지 못한 C씨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C씨가 사고를 냈을 당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음을 확인한 광산경찰은 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재영 기자

주거 침입 지적장에 40대 ‘무죄’ 왜?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지적장애인인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8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7시35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광

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인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 행위 증거로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A씨가 B씨의 집 앞쪽으로 향했다가 약 7분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인정했

다고 보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본 것들을 달리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침입했는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갔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며 “지적장애 1급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집에 침입했다’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것 만으로는 범행에 대한 A씨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